

16과

바벨탑을 쌓았어요



4월 20일

온 세상 사람들의 말이 하나였어요.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말했어요. "자, 이곳에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흠어지지 말자!" "벽돌을 구워서 쌓자!"
"우하하하!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도 할 수 있어!" 사람들은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서는 교만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탑을 쌓지 못하도록 말을 서로
다르게 해야겠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How do you do?"

"どういう意味ですか?"

"뭐라고? 무슨 말이야!"

사람들은 말이 서로 통하지 않자 탑을 쌓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그곳은 '바벨'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여러 나라와 많은 언어가
생겼답니다.



생각하는 아이

하나님의 솜씨

남우는 아람이네 집에 놀러 갔어요. 아람이와 집으로 들어가는데 강아지가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뛰어왔어요.

"에이, 너희 집 강아지 못생겼다. 우리 찰흙 놀이 하자. 찰흙으로 내가 예쁜 강아지 만들어 볼래." "피, 아니야 우리 강아지가 얼마나 귀여운데....."



"휴, 강아지 만들기 어려워. 아람아 좀 도와줘."

남우와 아람이는 강아지를 다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람이네 강아지와 많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상해. 너희 집 강아지는 함께 놀 수도 있고 장난도 치는데 이걸 그렇지 않아." 찰흙으로 만든 강아지는 아람이네 강아지와 무엇이 다른가요?



생각하는 아이

어린이들은 모두 새싹이에요. 식물들의 씨앗, 새싹은 모두 모양이 달라요. 우리는 서로 얼굴, 성격, 행동이 모두 달라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나무가 되면 좋을까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든지 그려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멋진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즐거은 활동

그림을 보고 알맞은 글을 보기 에서 찾아 쓰세요.

보기

세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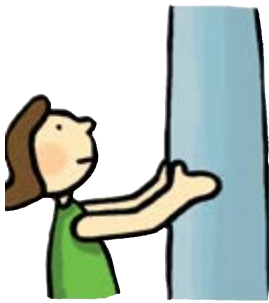
담아요

날라요

마셔요



벽돌을



기둥을



흙을



물을



마음속 암송

따라 쓰기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고
 누가복음 1장 51절

다시 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생님께

부모님께